



光州日報 창사 60주년 기획시리즈

생명산업 농업을 다시 본다 <12>

<2부> 유기·생태농이 대안이다

⑥ 친환경 축산

초지 방목·무항생제 사육으로 ‘청정 브랜드’ 키워

■ 전남 ‘녹색축산’ 성과 및 목표

분야	2011년 (성과)	2015년 (목표)
친환경축산물 인증	2,101호	10,000호
HACCP 지정	593호	2,000호
가축운동장 확보	482호	3,000호
축사시설 현대화	472호	3,000호
조사로 생산 면적	32,000ha	90,000ha
축산물 가공시설 확충	80개소	150개소
브랜드 축산물 판매량 확충	364개소	500개소

지난해 상반기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구제역 공포로 떨었다. 4개월동안 350만마리의 소와 돼지가 구제역으로 살처분될 정도로 전국이 초토화됐지만 유독 전남만은 무사했다. 당연히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남은 전남의 비결이 화제가 됐다. 방역과 상대적으로 적은 유동인구, 외진 지리적 위치 등도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결정적인 비결은 친환경축산에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전남 인증농 2101가구...전국 36%

6개 브랜드서 지난해 1005억 매출

1등급 이상 비율 66%로 전국 1위

“FTA 파고 넘을 유일 해법” 부상

전남이 친환경축산 분야에서도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유기농 축산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친환경축산은 가축사육시 항생제를 쓰지않은 무항생제 축산과 이보다 기준이 더욱 강화된 유기축산을 통칭하는 말이다.

전남은 2006년 친환경축산 5개년 계획을 세워 전국에서 가장 먼저 친환경축산을 실천했다. 무항생제 사료와 유효미생물 등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을 확대하는 등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에 주력했다. 2008년부터는 동물복지형 축산 개념을 도입한 녹색축산 5개년 계획으로 업그레이드 해 적절한 사육밀도 기준을 마련하고 가축 운동장을 확보하는 등 사육환경 개선에 나섰다. 1000억원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녹색축산육성기금을 만들어 312억원을 조성했고 지난해 5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2006년 당시 5곳에 불과하던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를 지난해에는 2101농가로 늘려 친환경축산 농가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6%를



환기 및 통풍 시설이 개선되고 사육밀도가 낮아진 친환경 축사에서 조사료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친환경 축사는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의 핵심 모델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기록했다. 가축에게 먹이는 친환경 조사료 재배면적도 2006년 3000ha이던 것을 5년만에 전국 최대인 3만 2000ha까지 끌어 올렸다.

녹색한우 등 6개 명품브랜드를 육성해 소비자에게 전남산 한우의 브랜드 파워를 키운 점은 더 큰 성과다. 전남은 지난해 녹색한우와 지리산순한우 등 2개 광역브랜드와 담양 대슬팜한우, 영광 청보리한우, 함평 천지한우, 영암 매력한우 등 4개 지역브랜드로 100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남산 한우의 1등급 이상 비율이 66.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도 품질 개량과 명품브랜드 육성 등 녹색축산의 결과물이다.

한우외에도 2009년 녹색계란, 2010년 녹색흑염소, 2011년 녹색돼지 등 축종별로 생산농가가 참여한 농업회사사를 만들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담양에 기반을 둔 녹색돼지는 지난해 900억원의 매출을 올려 기업화의 성공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축산의 미래가 밝은 것 만은 아니다. 최대 위협은 FTA로 인한 시장개방이다. 지난해 한-EU FTA에 이어 올해는 한-미 FTA까지 발효되면서 축산농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다. 두 지역과의 자유무역으로 전남 축산농가들이 입는 피해는 연간 115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미 FTA는 축산농가에 직격탄을 날려 전남 전체 피해액의 74.5%인 연간 939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남도는 FTA 파고 넘을 해법도 결국은 녹색축산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2016년까지 9483억원을 투입해 생산성 향상과 유통구조 개선, 소비촉진 등 3개 분야에 걸쳐 23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10만ha로

늘리고 600농가의 축사를 동물복지형 축사로 개선하기로 했다. 유통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8000호까지 올리고 산지 축산물 가공시설을 81곳에서 200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브랜드가맹점도 20곳에서 12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한우·젓소·돼지·닭·오리·흑염소 등 6종에 걸쳐 축종별 친환경 녹색축산농가 10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을 함께 받은 농장이 대상으로 이들엔 우선 납품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 경쟁력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녹색축산을 추진하고 있다”며 “2015년까지 전남의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전국의 50%로 올리려면 FTA 파고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지리산 순한 한우

혈통·사료·사양 통일 ‘3통’ 관리

전국 2000개 한우 브랜드중 1위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 브랜드로 ‘지리산순한한우’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지리산순한한우는 2003년 전남 동부권 7개 축협(고흥·곡성·순천광양·장흥 등)이 출범시킨 광역화 브랜드다. 단일 시군이 아닌 여러 시군이 참여한 국내 최초의 한우 공동브랜드로 전남 동부권 8개 시군에서 279개 농가가 참여해 3만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전국 축산물브랜드대전에서 2006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09년에는 대상을 차지해 전국 2000여개 한우 브랜드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설립 첫해인 2003년 1314마리를 출하해 87억원 을 올렸던 매출은 2005년 8월 대기업 유통사인 롯데쇼핑에 납품하면서 연간 3200~3500마리 출하에 250억원 안팎으로 급증했다. 현재 전체 출하량의 85%를 전국 100여개 롯데마트와 50여개 롯데슈퍼에 납품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전남도내에 있는 전문 판매점을 통해 소화하고 있다.

지리산순한한우가 전국 최고 브랜드로 성장한 것은 무엇보다도 무항생제 사육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사육에 참여하는 279개 농가 모두가 무항생제 사육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았다. 사업단이 농가 관리와 판매를 맡고 축협이 농가 컨설팅을 책임지고 30개월 이상 비육한 1등급 이상 한우만 시장에 내놓고 있다. 최상등급인 ‘1++’ 한우 출하율이 8%를 넘는 농가에 대해서는 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점도 품질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지리산순한한우의 성공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혈통·사료·사양을 통일한 일명 ‘3통’관리법이다. 100% 인공수정을 통해 혈통을 관리하고 완전 배합사료(TMR) 전용공장을 갖추고 질 좋은 사료를 공급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한우만 출하하고 있다.

안병국(47) 사업단장은 “무항생제 사육과 3통 관리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 성공비결이다”며 “앞으로도 최고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태양광, 태양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전기세, 난방비걱정**은 평생 끝!! 우리집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 쓴다!

신축 계획중인 고객님께서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주택용태양광 3KW
태양열난방시스템
태양열수시스템

설치전문업체가 국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효율의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할 절호의 기회를 드립니다.

주택용 태양광 한전 연계형 계통설비 (3kw이하~10kw이하)설치계통합니다.

최장 36개월 분할상환 가능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월 350kwh 생산 기준표)

기준청구요금(사용전력량 : kwh)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5만원(약 321kwh)일때	약 1,130원	48,870원
10만원(약 454kwh)일때	약 8,020원	92,270원
15만원(약 531kwh)일때	약 18,380원	131,810원
20만원(약 597kwh)일때	약 31,010원	169,510원
25만원(약 662kwh)일때	약 47,440원	202,640원
30만원(약 728kwh)일때	약 66,850원	233,150원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1588-4208 010-3624-5399 010-4764-0531

NAVER 강남산업 검색

법인등록번호 : 409-86-22826

(주)강남산업
KANGNAM INDUSTRY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폐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 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골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